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위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면 금방 가는 거리이기도 했고, 걷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활동적이신 분들은 운동 삼아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운타운과 굉장히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사항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편이고, 쾌적했습니다.</p>
수업	<p>수업 내용은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와 한국과의 문화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주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수업이었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수업은 진행되고, 동계 단기어학연수는 분반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빠르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셔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조금 씩은 있지만 시간이 거의 안 드는 과제였습니다.</p> <p>하지만, 만약에 영어 실력을 엄청 향상 시키고 싶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엄청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엄청 짧기도 하고, 듣기는 향상 되는 편이고, 말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수업만이 아닌 홈스테이나, 자기가 물건을 살 때나, 주문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문장을 완성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은 향상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워낙 짧은 시간이기엔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하지만, 쓰기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이 피드백을 잘 해 주셔서 본인인 저널 쓰기에 대해 더 하고 싶으면 더 해가면 피드백을 분명히 해주실 거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p>

Activity	<p>동계에서는 액티비티가 박물관,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 스노우 슈잉, 컬링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준비할 만 한 액티비티는 스노우 슈잉입니다. 장비는 따로 렌탈을 더 안하셔도 되고, 신발을 챙겨가도 되지만, 만약 못 챙겨가도 가서 빌리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츠 같은 게 있으면 겨울이 우기라 평상시에도 도움이 되고, 스노우 슈잉 할 때도 따로 렌탈을 안 해도 괜찮아서, 여자 분들은 부츠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발이 편해야 해서 높은 굽은 추천 안 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시기 내내 거의 비가 왔습니다. 작은 우산을 항상 챙기고 다녔습니다. 비가 너무 싫으신 분은 하계를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날씨가 춥진 않습니다. 막상 갔을 때는 롱패딩을 괜히 챙겨 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디 패딩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옷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두꺼워도 될 것 같습니다.</p>
안전	<p>학교에서 안전을 위한 동영상을 보여줘서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보다 집에 빨리 귀가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는 편이고, 캐나다 문화가 집에 귀가를 빨리 하는 편이라 정말 늦게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위험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p> <p>저는 2층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간 호스트 패밀리 집은 굉장히 아늑했고, 개인의 공간을 따로 침범하진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저랑 일본인 친구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와 같이 썼지, 다른 가족들은 각자의 화장실을 써서 편리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불이 얇은 편이지만 이불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것이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가족을 어떤 가족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홈스테이 생활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o) 홈스테이(o) 외부 식당(o) 기타()</p> <p>학교 식당에서는 주로 먹지 않고, 간식정도 이용한 편입니다. 홈스테이에</p>

	<p>서 런치박스를 챙겨 줍니다. 여기의 런치는 가볍게 주로 먹기 때문에 약간 배고플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간식을 사먹거나, 호스트에게 좀 더 달라고 하면 모자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컵라면도 팔고, 스시도 팔고 여러 가지 팔기 때문에 사먹고 싶으신 분들은 사드시면 됩니다.</p> <p>그리고 저는 저녁을 챙겨 주긴 했지만,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운타운에서도 반 이상은 외식을 했습니다. 아마 런치가 부족해서 저녁을 일찍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어서 저는 잘 먹고 다녔습니다. 외부 식당으로는 한식, 일식, 중식, 그냥 많은 문화권이 섞인 도시라 이것 저것 먹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아시아권 식당은 팁 문화를 항상 지킬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갔던 베트남 식당이나 한식당에서는 팁 통은 있었지만, 그건 선택이라서 팁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권이라고 다 팁을 안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p>
교통	<p>통학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홈스테이를 하진 않고, 주로 1시간 이내로 통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면 홈스테이 가족이 어떤 버스를 타고, 스카이 트레인을 타는 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교통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홈스테이 오피스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알려주십니다. (노란 줄을 당기는 것인데, 긴 줄이 아닌 일직선으로 된 줄 잡아당기면 버스 stop 합니다), 스카이 트레인이나, 버스가 깔끔해서 좋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약 350,000	(간식, 외식)
개인 쇼핑	약 450,000	(개인 쇼핑, 기념품)
관광	약 110,000	(빅토리아 행 페리 값, 전망대, 캐필라노 등)
합계	약 910,000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우선, 날씨에 대한 인지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밴쿠버는 우기입니다. 비가 거의 항상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장화가 있으신 분은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신발 같은 거 챙겨 가서 신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여자 분들은 예쁜 옷 갖고 가고 싶으시겠지만, 비가 워낙 자주 와서 바지가 제일 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위를 엄청 타시는 분이 아니면 롱패딩 말고 숏패딩이나, 미디 패딩 정도가 날씨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좀 추울 것 같으면 목도리, 장갑, 비니를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비가 엄청 오는 날 저녁이 아닌 이상 일교차도 크지 않아서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만 정말 추위를 많이 타시면 차라리 껴입고 다니시는 걸 추천 합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가끔 후리스랑 목폴라티만 입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스노우 슈잉 할 때는 패딩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옷이 전반적으로 젖는 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생활 방수가 되는 걸옷이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식에 대해서, 자기가 한식을 너무 좋아하거나,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면 짧은 기간 동안이니 챙겨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고기를 먹어도 닭고기만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음식이 짠 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해 딱히 신경 쓰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가져도 됩니다. 다운타운에 한인마트도 크게 있어서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같은 것도 팝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니 한 번쯤 그냥 가서 부딪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팁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거의 15% 주는 게 맞습니다. 너무 서비스 기 안 좋으면 안줘도 되지만, 주룩 15%를 주는 것이 캐나다 문화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기계에 팁 체크란에 표시하시면 되고, 현금일 경우 팁을 알맞게 주시면 되는데, 팁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도 않고, 돈도 더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겐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팁 문화 자체도 그 나라의 문화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달러는 주로 받지 않으니, 100달러로는 환전 하지 마세요. 최대 50이 좋고, 20,10달러로 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판기나, 가게를 이용할 때는 20.10달러를 쓸 생각 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separate 로 해 달라고 하면 빌지를 하나 씩 줍니다. 더치페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곤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개인 적으로 홈스테이 가족을 굉장히 잘 만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잘 만났지만, 저는 강아지가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20년 전에 온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끔 런치가 모자른 거 빼고는 정말 다 완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학을 공부하기 보단, 짧게나마 현지 생활을 느껴보고,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만족하고 왔습니다. 정말 다만 아쉬운 건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비가 항상 오니, 여름에 왔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비가 소나기처럼 온 적도 많아서 날씨 좋을 때는 잉글리쉬 베이에 가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주간 안전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나, 여러 방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생각이 들었고, 영어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토익 이런 것이 아니어도, 스피킹 공부는 계속 놓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장소입니다.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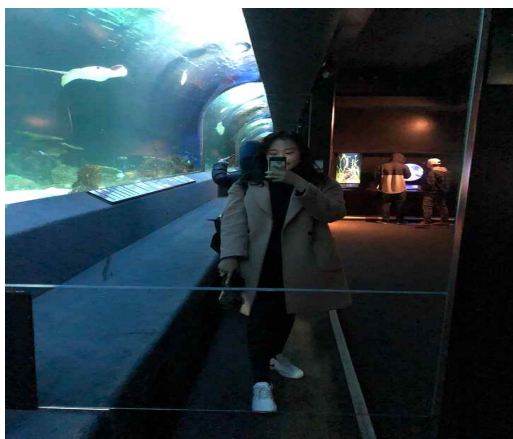
재미없을 줄 알았지만, 정말 재밌었던 활동이었습니다.



Capilano Suspension Bridge



Victoria City



아쿠아리움



스노우 슈잉